

MB 치적쌓기용 자원외교 총체적 부실

산자위 국감 “석유공사, 캐나다 에너지사 인수 1193억 손실”

미방위에선 백승기 인터넷진흥원장 등 박 정부 보은인사 질타

국회는 23일 산업통상자원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기획재정부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이명박 전임 정부 시절 해외 자원외교 실패와 박근혜정부의 보은 인사, 증인 출석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국회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의 자회사인 인수한 사례를 지적하며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실적 쌓기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당여리”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애초 공사는 탐사·생산 등 부문만 인수하려다 하베스트 측의 요청으로 계획에도 없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파이프라인(NARL)을 포함해 일괄 인수를 했다”며 “그러나 올해 8월 석유공사는 NARL을 미국의 한 은행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차관 의원은 “NARL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1억1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외부기관의 보고서에도 ‘매각가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환경오염 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요소가 많다’고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미방위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권 보은 인사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은인사’라고 규정하며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일하다 세월호 참사 직후 사임했고, 4개월 만인 지난 9월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한 백 원장을 지목해 “격정했던 ‘관피아’가 내려앉은 것보다 더 최악”이라며 “백 원장이 청피아(청와대+마피아), ‘박피아(친박 인사+마피아)’ 지적을 받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기자위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

에 대한 국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안홍철 KIC 사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했다. 여당은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야당이 거부하는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안 사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을 비난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주기적으로 올려 야권의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 대상 국정감사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한 김성주 총재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재가 귀국한 후인) 27일도 오전에 ‘적십자의 날’ 행사가 있어 오후 3시부터 국감이 가능하다”고 말한 김중섭 부총재는 의원들로부터 못매를 맞다가 급기야 퇴장당했다. 교문위의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국감에서는 지난 18일 새벽 교문위의 한국관광공사 대상 국감에서 설훈 위원장의 자니 윤(윤종소) 상임감사에 대한 ‘노익장 발언’을 두고 설전이 재연됐다. 새누리당은 설 위원장의 공개 유감 표명을 요구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감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버티면서 공방이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송곳 질문에 피감기관 진담... “농어촌 활로 찾겠다”

국감 인물 새정치 황주홍 의원



은 배제하는 인사 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8일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황 의원은 농진청 연구원들이 서울대학교보다 많은 연구비를 받으면서도 연구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 농진청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 ‘할 말을 하는’ 까칠한 성격으로 정평이 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올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송곳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 피감기관들이 진담을 흘리고 있다.

황 의원은 23일 농협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절반 가량이 부실이며 연체 비율도 시중은행을 크게 넘어선다고 지적한데 이어 주택담보 대출자의 14.5%에 대해 구속성 예금인 일명 ‘격기’ 등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산림청 국감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두 번이나 인하되면서 시중은행 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입입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 공감을 얻기도 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은 역대 사상 16명 가운데 11명이 고위 공무원 출신의 ‘관피아’며, 5명은 정치인 출신의 ‘정피아’라고 지적하며 관료나 정치권 출신

이 밖에도 황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입률이 20% 미만인데 그치고 있다며 정부측에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가 하면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병역 대체근무제도 도입,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착 지원금 지급, 호남권 총자총합 처리센터 건립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 분야 정책수요조사’ 등 무려 6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 철저하게 국감을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 의원은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으며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도시 근로자 소득의 60% 밖에 안되는 농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김태호 최고 전격 사퇴...차기 대선 노린 승부수인 듯

“경제활성법 장기계류 책임” 명분

김무성 대표 개헌 발언 비판도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표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23일 최고위원직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지난 7·14 전당대회에서 3위 득표자로 지도부에 입성했던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을 사퇴한다. 반복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볼 때 국회의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현안인 경제활성화(법안)를 쿨하게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가 전제돼야 이후에 개헌도 가능하다는 뜻에서, 나부터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도중 사의를 드러내면서 “개헌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영장을 뿌렸다”고 일갈하며 김무성 대표까지 겨냥했다.

◇‘김무성 체제’ 흔들=출발 100일을 갖 넘긴 ‘김무성 체제’는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맞게 됐다. 특히 최근 개헌론이나 공무원연급 개혁 시기를 놓고 당청간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아찔한 상황이다. 일단 김 최고위원의 사퇴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은 정원 9명 중 7명이 남게 됐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대표 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5명, 당연직(원내대표, 정책위의장) 2명, 지명직 2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정현 최고위원 1명만 채우고 나머지 1석은 공석이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1개월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보궐

선거를 해야만 결원을 채울 수 있다.

◇사퇴 배경=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퇴일뿐 아니라 사퇴의 변도 설득력이 떨어져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을 사퇴배경으로 들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된 것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어서 이 시점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고리로 사퇴하는 것은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은 오는 27일까지 예정

된 국정감사가 끝나면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최고위원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확실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충격요법’을 쓴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무성 대표가 최근 여론 내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차기 대선가도에서 과감한 ‘추월’을 시도한 것이란 얘기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박지원 “검찰, ‘특정 검사 집중관리 지침’ 공개해야”

검찰이 내부적으로 특정 검사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집중관리 검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며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이 지침에 의해 누가 집중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지침은 국가안보나 군사기밀과 무관한 자료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

개돼야 할 자료”라며 “피감기관은 군사·외교·남북관계·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집찰 인사와 직결되는 문제로, 대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모른다면 법무부가 총장을 제재하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어떤 취지인지 대강 이해를 하겠다”며 “법무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광진 “특전사 방탄복, 北 소총에 관통...국방부는 모른 척”

육군 특전사령부에 지급된 방탄복이 북한군 총탄에 관통되는 등 성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데도 국방부는 이를 알고도 회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배포한 ‘전력지원 체계 획득·관리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전사에 보급한 2062발의 다기능 방탄복이 북한 개인화기(AK-74) 총탄에 ‘완전관통’돼 생명을 보호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4월 특전사가 방탄복의 성능이 작전수행에 적합한지 예하 부대인 제3여단 정찰대와 제707대대에 시험운용한 결과 제707대대는 총탄을 방호할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0년 5월 특전사는 제707대대의 보고는 누락하고, ‘적합’ 판정을 내린 제3여단 정찰대의 보고만 인용해 2011년 4월~2012년 12월까지 S사로부터 2천62발(13억원)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감사원이 S사가 납품한 방탄복의 성능을 AK-74로 시험한 결과 관통돼 장비의 생명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감사원 지적에도 불방탄복을 현재도 사용함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은폐 의혹마저 든다”면서 “전량 폐기한 뒤 책임자를 문책하고 방탄복 성능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타워 완비

- 5층 참조은인파
- 4층 한길통증의학과
- 3층 신한은행
-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건설원 김장기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매각가액 상당 후 결정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68-5151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근로자·직장인 전문직을 위한 **신용대출** 최고 1억원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